서문
序文

호 영 진
파주시지 편찬위원장

파주 산하의 개벽

20세기 중반부터 살아오는 노년 · 장년 중엔 "우리 세대가 평생 겪은 변화야말로 그 앞선 수천 년간의 변화를 합친 것보다 더 크면 컸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첨단 과학기술의 선도로 인간 생활은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었다"는 중국식 과장법을 쓰더라도 성에 안 찰 만큼 속속들이 참 많이도 변해간다. 시장주의를 가속하던 세계 경제의 흐름이 갑자기 소용돌이를 치는 순간,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이 솟아나 세계사의 흐름에 일대 분수령을 긋는 상황 전개 역시 예사 변화가 아님은 분명하다.

근년 파주 땅에 발을 디디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변화의 단면 한 복판을 뚝 잘라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오랜 세월, 전쟁에 할퀸 임진강가 변경의 한 기지촌쯤으로 뇌리에 각인된 파주의 이미지가 번영 한국의 대표도시로서의 해맑은 자태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 알차게 속내를 갖추며 먼 지평을 향한 성장 가도를 쉬지 않고 치닫는 모습이 어딜 가나 눈에 들어온다. 세계적 대도시 서울이 손닿는 거리였는데도 휴전 후 수십 년간을 궁기에 촌티, 때로는 전운마저 자욱하던

파주의 온 누리가 길지도 않은 요 몇 년 사이 변혁의 기적을 날로 달로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시민들도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갈수록 마음 어딘가에 자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고 달라지는 현재에다 흘러간 시절들의 영상을 덧씌워 비교해 보며, 바야흐로 누구도 아닌 우리들의 손으로 일궈내는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싱그런 맛깔을 오롯이 음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지역의 변화를 손쉽게 가늠하는 지표는 무엇보다 인구 동태라 할 수 있다. 인구의 증감이란 다름 아닌, 한 지역에서 이사 나가는 사람의 숫자와 이주해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 간의 차이다. 근년 파주의 인구 급증 현상은 따지고 보면 시가 추진하는 시민 복지지수 충족 뒤에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지표일 따름이며 그 복지지표의 속내는 '시민들에게 등 따습고 배부르도록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007년 말 파주의 상주인구는 31만 1625명으로 2001년 말의 22만 6858명에 비하면 6년간 무려 37.3%(연평균 6.2%)가 증가했다. 시로 승격한 1996년의 인구 17만 2037명과 비교한다면 11년 사이 81.1%(연평균 16.4%)나 불어난 것이다. 전망은 어떤가. 2010년에 50만 명, 2025년엔 87만 명이란 분석이다. 이런 인구의 팽창은 시 승격과 산업시설 증가, 특히 'LG 디스플레이'의 가동과 교하신도시 신설에서 비롯되었다.

일자리 증가 현상은 산업체 종사자의 총수로 알 수 있다. 2006년 말의 업체 종사자 수는 8만 134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462명, 8.6%가 늘어났다. 이는 여러 조건이 유사한 고양시의 같은 해 일자리 증가율 5.8%보다 높을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평균 일자리 증가율 3.2%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전국 평균 증가율 1.9%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탈을 벗다

파주가 이뤄낸 값진 변화를 통계 숫자만 가지고 뒷박질한다면 너무 고식적이다. 오히려 시민생활의 정신적 측면이 각박해졌는가,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생겼는가가 더 중요하다. 보릿고개가 언제였는지 까맣게 잊고 사는 풍요로운 물질생활에 정신생활 내지 문화생활이 동행할 때라야 비로소 물질적 풍요는 알차고 바람직한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며 인간 가치의 그레이드 업이다. 개개인이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은연중 "내가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인간답게 사는구나" 하는 자존감이 충만해 간다면 인간 가치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활 조건은 일일이 손에 잡히거나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닿을 수 없는 아주 먼 데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행복의 척도를 물질을 기준으로 재는 관성에서 벗어나 인간의 전유물인 정서생활 측면을 먼저 중시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선행된다면 의외로 간단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것

이 바로 생활의 질인 탓이다.

생활의 질의 첫째 조건은 가장 가까이 사람의 손이 닿는 공간의 깨끗함이다. 인류사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어떤 사회가 미개권에서 문명권으로 옮겨갈 때는 두 개의 분기점을 거치곤 했다. 하나는 안전성과 같은 물질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평균 시민의 정직성, 친절성, 공중도덕과 같은 정신적 지표였다. 이 중에서 일반 사회인이 처한 생활환경의 청정성 정도야말로 문명 등급을 판가름하는 가늠자이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몸소 겪고 하나하나 실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년 들어 방문자는 물론 주민들 자신이 아침저녁으로 보고, 숨쉬고, 손발로 만지고, 마음에 느끼는 파주의 달라진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우선 깨끗한 시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은 물론 농어촌까지도 거칠던 옛 그림자는 자취를 감추고 말끔히 때를 벗었다.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치솟는 고층 아파트나 흙길을 덮은 아스팔트길은 발전의 상징이고, 박꽃 핀 초가와 오솔길은 추방의 대상이라는 논리는 물론 아니다. 다만 이 고장에서는 도시와 농촌 어디를 가나 넘쳐나는 쓰레기더미, 흐트러져 휘날리는 먼지나 악취와 같은 발전 한국의 부산물을 모두 추방시켰다. 오가는 이들은 쓸 물건과 안 쓸 물건들이 잘 정리 정돈되어 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의 질의 둘째 조건은 질서다. 정리 정돈과도 맞물리지만, 근년 파주의 놀라

운 변화는 도시의 얼굴인 간판 질서의 일신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판의 정리 정돈 하나가 도시의 얼굴을 몰라보게 바꾸어 놓은 지렛대 효과에 새삼 놀란다. 불과 수삼 년 전까지만 해도 크나 작으나 파주 어떤 시가지를 들어서도, 양심도 없다 싶은 간판들의 광란이 시각을 어지럽혔었다. 물론 파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과 전국 대소 도시 가릴 것 없이 몽땅 그런 형편이었다. 아마도 간판 무질서로 콩쿠르를 연다면 그랑프리는 한국의 차지였을 터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간판혁명이 파주에서 벌어져 단기간에 무질서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런 현상은 신선한 바람처럼 전국의 다른 도시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감히 '역사적' 이란 수사를 써도 괜찮을 특기할 변화가 있으니 그것은 수백 년 묵어 타래처럼 엉킨 관존민비의 케케묵은 때를 단숨에 훌쩍 벗어던진 일이다. 파주시의 '전략 2010 시정운영 기본계획' 에서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도시' 와 함께 4대 지표의 하나로 표방된 '시민주의 행정' 이야말로 파주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파주시 행정혁신의 대표 품목은 인허가와 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이다. 현재, 파주시는 간단한 민원인 경우에는 당일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역대 정권, 관청 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시정목표로 내걸지 않은 데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행한 곳은 다름 아닌 경기도 파주시다. 파주의 행정혁명 또한 간판혁명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씨를

뿌리고 있다. 고루한 관존민비 사상의 탈각 없이는 이루기 불가능한 일대 변혁이 파주에서 탐스런 열매로 영글고 있는 것이다.

역사 속 파주, 어디쯤인가

중국 역대 제국들은 북방 유목민족들에 몹시도 휘둘려 왔다. 주로 화북 변경지대를 넘나들며 세력을 키우던 수렵 기마민족들의 끝없는 도전으로 중원의 주인 한족漢族은 빈번히 깊은 참화를 입어왔다. 일시적 월경만이 아니라 요遼, 금金, 원元, 청淸처럼 몇 세대, 몇 세기에 걸쳐 안방을 몽땅 내준 역사의 주객전도를 몇 차례나 되풀이한 곳이 다름 아닌 중국이다.

이외에도 주역이 뒤바뀐 예는 많다. 근대사의 주역인 서유럽, 그중 영국이야말로 주역 교체의 표본이다. 로마 지배, 게르만 7왕국 통치, 데인과 노르만족의 이입으로 선주 켈트족이 밀린 그 땅 위에서 게르만계 앵글로색슨의 나라 영국은 오늘까지 천 년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프랑크, 갈리아, 훈, 인도 아리안, 잉카, 라틴 등 동서의 많은 나라에서 역사의 주역 교체가 일어났다. 지금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미국의 향방도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한반도는 다르다. 말갈, 선비, 몽골, 숙신, 여진 등 북방민족들의 끝없는 내침을 받았으면서도 일본의 일시 병탄 말고는 최소한 국토의 안방을 내어준 적은 없다. 비록 중국의 신하국, 부마국, 삼전도 굴욕과 같은 수치를 당하기는 했지

만 그래도 중국처럼 나라를 송두리째 뺏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중 간엔 물론 상이점뿐만 아니라 근사치도 있다. 중화사상에 도취되어 자존망대 하던 중국과 소중화를 자찬, 추종하던 조선은 변방족과 근대 이후 서구 열강까지 싸잡아 오랑캐라 얕잡아보다가 결국 일본에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이는 한마디로 양국 공동의 자업자득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교하交河라는 지명에 배어나듯 파주는 크게 한강, 임진강 두 풍요의 젖줄이 교차하는 천혜의 고장이다. 더 넓혀 보면 고려의 개국과 번영에 활로를 열어준 예성강까지 3개의 대하천이 경기만으로 합류하는 유례없는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파주는 한민족이 대륙에서 반도로 이입 정착하는 수천 년의 긴 역사 속에서 마치 인체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다. 고금 간에 사람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려 들 수밖에 없는 생활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파주는 동북에서 남서로 향하는 광주산맥과 휴전선 경계 너머 마식령산맥 사이에서 서녘으로 황해를 굽어보는 위치에 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사행蛇行으로 빗겨 구비치는 임진강가엔 감악산, 칠중산성, 오두산성, 심학산, 월롱산성, 봉서산성 등 그야말로 수백의 대소 뫼부리 언덕[坡]들이 꼭 흥에 겨워 춤추는 농부의 어깨처럼 잔잔히 물결치며 굼실댄다. 어느 기슭을 살펴보나 옛 신라, 백제, 고구려 3국이 반도의 심장을 겨냥, 앞 다투던 역전의 고전장들이 그제나 이제나 요충지다운 형세를 풀지 않고 상기도 옹골차게 버텨 서 있다.

이제 새 천 년이 동터 비상의 나래를 편 오늘, 동아시아에서 통일한국으로의 길을 여는 일은 파주에 안겨진 몫이다. 짧게 서울 · 개성 · 평양 축, 길게 동쪽 끝 일본과 중 · 러 유럽을 잇는 기나긴 동축의 연결고리에서 파주는 마치 베어링과 같은 연결 기능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주의 역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다. 고려조 500년은 장단과 함께 도읍지 개성의 동교東郊, 즉 동쪽 교외로, 조선조 500년은 한양의 서교로 칭해지며 고려와 조선 두 나라 왕성의 근기近畿로서의 역사적 기능을 떠맡아 왔다. 현재의 파주 · 교하 · 적성 · 장단 등 서너 지역을 두고 삼국시대에 파해평사, 술이홀, 천정, 칠중 등으로 시작하여 봉성, 서원 등으로 여러 번 바뀌 불려온 것에도 그런 함의가 서려 있다. 그중 파해평사현은 신라, 고려에 걸쳐 다른 지명으로 고쳐 불리며 예속을 달리하기도 했다. 서원은 조선 태조 때 고을 아전과 백성들의 호소로 군郡으로 승격된 뒤에 변경된 지명이었다.

뭐라 해도 파주 역사상 가장 큰 변화는 세조 6년의 목牧 격상이다. 정희왕후貞喜王后의 출생지라 하여 일약 파주목으로 승격되었으니, 오늘처럼 지명 끝 자가 고을 주 州자인 '파주'가 된 것이 그때다. 조선조 말까지 파주목의 치소는 파주읍 파주리였으나 일제가 경의선 철도를 부설하던 1904년에 군청이 문산리汶山里로 옮겨졌고, 밀고 밀리는 1 · 4후퇴 후 수복 과정에서 지금의 금촌동으로 임시 이전하게 되면서 그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통선 넘어 장단군의 4개 면이 1972년 파주시

에 편입된 것 역시 긴 역사 흐름의 한 구비임은 물론이다.

나라 빛낸 거목들

북방민족의 거센 내침에 대비한 한반도 역대 왕조의 주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중국 한족을 포함한 북방 여러 종족들 간의 부침이 워낙 극심하고 복잡다기한 데다 중과부적인 경우가 많아 모든 침략군에 백전백승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동서고금에 싸우지 않고 이김을 상지상책으로 삼은 것도 그 통속이다. 그런 가운데 삼국 정립 시대의 중심적 위치로나 고려 · 조선 1000년간의 근기로서의 파주의 운명이 북방민족의 행동반경에서 벗어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 숙명이었다.

서희徐熙처럼 거란족과 여진족의 내침을 웅변으로 막았든, 강감찬姜邯贊과 윤관尹瓘처럼 무력으로 공세를 꺾었든,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상당 기간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그러나 발해 멸망 후 북방 제 민족들이 요동치던 삼국 말기와 고려 초 · 중기 이후 여러 대소 종족들이 의주를 넘어 개경과 한양으로 공략하는 상습 침략 루트 위에 자리한 파주는 때때로 견디기 힘들 만큼 참담한 지경에 빠져 주민들이 허덕였다. 한편 대조적으로 파주는 경의국도 연변에 자리한 요충이었기에 전쟁 시기와는 전혀 다른 평화 시의 역할도 주어졌다. 사대교린으로 국시를 굳힌 조선조나 그 이전에도 종주국 행세를 늦추지 않던 중국 역대 황제들에게 철마다 사은

사를 보냈고, 위세 등등한 칙사들에 대한 '칙사 대접'을 꼬박꼬박 해 바치는 굴욕이 바로 그것이었다.

임금들의 선왕릉 참배길을 '능행길'로 불렀듯 연경을 오간다고 해서 '연행길'이라 높여 부른 것은 파주에게 부여된 또 다른 역할을 암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조공무역이었다. 조공은 한중 관계를 오래 지속시킨 뒷심으로 오늘날 나라 간의 교역에 진배없이 막중한 비중을 차지했다. 양국 왕실은 거기에 연줄을 대고 사리를 챙기는 특권층의 이해관계에 직간접으로 깊숙이 얽혀 있었고, 이는 국교를 깨지 않고 지탱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했던 것이다.

보통 역사에는 진충보국, 애써 이룬 전승의 공을 끝막에 탐닉과 모반으로 먹칠하여 목숨을 잃고 패가망신한 명장과 명신들이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고려조만 해도 이자연, 이자겸, 김돈중, 정중부, 이고, 이의방, 이의민 등과 삼국사기 저술은 물론 혁혁한 무공을 세웠으면서 뒤에 저지른 매국적 처신으로 해서 내공을 무너뜨린 김부식 등을 들 수 있으니 역사의 해학이다. 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려 예종 때 출장입상出將入相한 파평면 금파리 출생의 윤관 장군은 좋은 예이다. 그는 여진의 침입에 맞서 신기, 신보, 별무반을 편성하는 탁월한 전략으로 압승했을 뿐 아니라 9성을 축조, 백성을 이주 토착시키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가 애써 지은 9성은 반대파의 모함으로 적측에 반환되는 운명에 처한다. 결국 윤관은 실의에 빠져 낙향하고, 그뒤 벼슬을 사양하며 두문불출하다 생을

마쳐 광탄면 분수리에 묻혔다.

윤관은 고려 개국공신 윤신달尹莘達의 5세손으로 한국의 명문거족 파평 윤씨의 중시조가 된다. 파평면 눌노리에는 시조의 탄생 설화를 담은 용연이 있고 교하읍 당하리, 와동리 일대에는 파평 윤씨 정정공파 묘역이 보존되어 있다. 세조비 정희왕후의 부친 파평부원군 윤번, 문정왕후의 부친 파산부원군 윤지임 등 부원군 묘 3기와 정승 묘 5기에 판서 묘 8기, 승지 묘 12기, 참판 묘 30기인 것에서 그 후예들의 번영을 짐작할 수 있다.

윤문의 위세는 인구 분포에서도 잘 나타난다. 44개 본관을 갖는 윤씨의 전국 총 인구는 94만 8000여 명으로 성씨별 전국 인구 순위가 8위인데 파주시 안에서는 이 순위가 조趙씨, 강姜씨를 뛰어넘어 6위이다. 본관별 순위는 더 뚜렷하다. 전국의 파평 윤씨는 71만 3000여 명으로 9번째이나 파주시 안에선 4311명으로 5번째로 껑충 뛴다. 전국적으로 구성비가 현격히 높은 전주 이씨, 김해 김씨, 밀양 박씨, 경주 김씨 4본관만이 앞설 뿐이다. 한편 전국적으론 김해 김씨, 밀양 박씨에 크게 뒤지는 3위 전주 이씨가 파주시에서는 1위다. 500여 년 조선 왕조의 근기다운 특성이 아닐까 여겨진다.

파주에서는 파평 윤씨 이외에도 역사적인 인물들과 명문거족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른바 '파주 삼현三賢'을 논함에 있어 먼저 윤관 장군을 세운 것은 무엇보다 그가 시대순으로 가장 앞서기 때문이다. 더구나 파평 윤씨는 시조, 중시조를 거쳐

천여 년 간 파주에 세거한 토성으로, 장군 자신도 여기서 태어나고 운명한 순수 파주인이다. 파주 삼현 중 윤관 장군 다음으로는 먼저 황희黃喜를 거론하고 그 다음에 이이李珥를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이론이 있을지 모르나 황희가 아무래도 이이보다는 앞선 시대의 사람인 탓이다.

방촌은 시대가 흐를수록 그 인품에서 우러난 수많은 일화들이 널리 전파됨으로써 충무공, 세종에 버금갈 만큼 고명을 떨쳐오고 있다. 여말 개성 방촌에서 장수長水 황씨 가문에 태어나 고려에 사환 중, 나라가 망하자 두문동에 들어갔다가 마지못해 태종에 불려 조선조에 입조했다. 그는 위대한 성군인 세종 아래서 말년에 영의정 18년 포함, 28년 동안 5판서 3정승을 두루 역임한 끝에 반구정에서 갈매기를 벗 삼아 아흔 긴 평생을 마감한 역사에 다시 찾기 어려운 거목이다.

특출한 것은 그의 관록만이 아니다. 청백리, 훌륭한 관리, 관대한 인품을 논할 때 그를 사표로 내세우지 않는 이가 없다. 미상불, 세종의 찬란한 광채가 방촌의 보좌 없이도 그만 했겠느냐고 조감할 정도다. 후손의 지역 집중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전국 장수 황씨 14만 6000여 명 가운데 20.3%인 2만 9878명이 경기도에 사는데 그중에 파주 거주인은 3.7%인 1113명이다.

율곡은 퇴계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리학자일 뿐만 아니라 명신, 사상가, 교육자, 철학자 등 그 어느 호칭을 붙여도 두루 어울리는 조선 최고의 현자임에 이의가 없다. 특히 임란을 예견해 10만 양병 상소를 올린 그의 선견지명은 후

세에 모르는 이가 없다. 그는 아홉 번 과거를 보아 아홉 번 장원한 천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49세에 병약한 생애를 마쳤으니 나라가 입은 손실이 컸다. 그런 율곡을 학덕의 높낮이로 누구와 비교한다거나 더욱이 폄하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 그의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은 성리학에서 쌓아 올린 대산맥이며 기호학파의 상징이기도 하다. 만들어 시행했던 향약 역시 오래도록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5만 486명의 덕수 이씨 중 26.8%인 1만 3546명이 경기도에, 그중 2.6%인 358명이 파주에 산다.

근기近畿 천 년의 향기

파주에는 3현 외에도 우계 성혼成渾을 비롯한 창녕 성씨 · 청송 심씨 가문, 휴암 백인걸白仁傑 등 여러 거유들이 버티고 있다. 높은 수준의 학문이나 행적으로 조선 중기에 문명을 떨친 파주의 인물 가운데, 특히 율곡과 교류했던 우계는 우율牛栗학파란 호칭이 따를 만큼 학문에 깊이가 있었다. 율곡에 한 살 위였던 그의 고담준론은 후학들을 널리 모으고 학풍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는 파주가 '조선의 추로지향鄒魯之鄕'(공맹이 출생한 고장을 가리킴)으로 불린 연유이기도 하다. 우계는 서울 순화방에서 태어나 아버지 수침을 따라 눌노리의 우계마을로 옮겨 대학자로 성장했다. 그런 그는 선조 · 광해군 부자와 기연이 있었다.

임란 중 여러 곳을 전전, 난을 피하던 우계는 마침 이천伊川에 머물던 세자 광해

를 만나 도운 행운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몽진 때 파주를 지나던 선조가 성혼의 집을 물은 고사에서 행운은 빗나간 듯하다. 옆에 있던 이홍로李弘老가 '저기 보이는 집이 우계의 집'이라고 답했으나 실은 우계의 집은 경의국도에서 '저기'라고 손짓할 거리를 훨씬 벗어난 거리였고, 그 시간에 우계가 집에 분명 있었으되 임금 파천 소식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달려가 알현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고의적 회피라는 선조의 오해를 사 깊은 미움을 받았고 끝내 무고함을 신원치 못한 채 곡절 많은 생을 마친 것으로 전해온다.

파산서원은 그런 우계와 그 부친 수침守琛, 숙부 수종守琮과 함께 성씨 문중 3인과 후학들에 깊이 훈도를 끼친 휴암 백인걸의 위패를 봉안한 곳이다. 선조 원년에 율곡과 휴암 등 파주 지역 유생들의 주창으로 창건되어 효종 원년에 사액을 받았다. 뒷날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도 살아남은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휴암은 스승인 조정암趙靜庵의 도학을 강하며 율곡, 우계 등과 파산학坡山學을 형성했다고 일컬어질 만큼 동시대 여러 학자들과 학문적, 인간적으로 엉켜 파주 사림 형성을 주도했다. 특히 스승이던 정암의 문묘배향을 끈질기게 소청했듯이 바른말 잘하고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하며 파쟁엔 초연하려 애쓴 의인으로 추앙된다. 졸년인 83세에 지중추부사로 승차하기까지 내외직 여러 벼슬을 지냈으되 평탄치는 못했다.

창녕 성문成門의 우계 및 그 친족이 파주 3현에 준한 비중으로 언급되는 데 비하면, 그 일가로 애국 충절의 표상처럼 공인받는 매죽헌 성삼문成三問에 대한 조명이

어두움은 의외다. 출생지가 충남 홍성이라는 일설 때문이라면 설득력이 약하다. 강릉 출생인 율곡의 경우 선대의 세거지가 율곡마을이란 점에서 파주 3현으로 추앙됨에 어색함이 없다. 매죽헌이 글을 직접 배운 조부 판중추부사 성달생이나 부친 성승의 세거지와 무덤이 파평산 아래 있다. 한글 창제에 이바지하고 계유정난 때 충천한 충절로 역대 충신의 본보기가 된 그는 분명히 파주가 받들 인물이 아니겠는가. 직계 상하가 멸문당한 탓에 사후 그를 떠받든 직손이 없었던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본래 송도와 한양 사이의 경기 서북은 고려와 조선에 걸친 근기였던 반면 한강 이남의 경기 지역은 조선에 들어와서 근기가 된 지역이라 조선의 한양 천도 초기에 고려 세도 가문들은 이미 한강 이남으로 많이 옮겨 갔다. 파주서 양주, 용인으로 이동한 연일 정씨, 용인 이씨, 한양 조씨 등이 그들이며 그외에 한산 이씨, 양천 허씨, 광주 이씨, 여흥 민씨, 양주 조씨, 덕수 이씨 등은 이미 그 이전부터 근기 여러 곳에다 세거지를 두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치 못한 선현 가운데 맹사성 못지않게 청렴했던 문화 본관의 류관柳寬 정승, 고려 개국공신의 후손으로 문하시중 곡성부원군에 올라 토성인 파주 염씨의 중시조가 된 염제신廉悌臣, 역시 토성이라 할 교하 노씨의 중시조로 조선 중엽 영의정을 지낸 노사신盧思愼의 묘가 파주읍 백석리에 있다. 그 15세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이외에도 광탄면 두만리에서 만장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 김종

서 등과 6진 개척에 공헌하고 뒤에 영의정 재임 중 계유정난에 죽음을 당한 황보인皇甫仁, 명의서 『동의보감』을 펴내고 장단에 묻힌 조선의 대표적 의술인 허준許浚 등… 그야말로 제제다사다.

문산 못 미쳐 오금리에는 세종조 때 천문 관찰에 많은 업적을 남긴 밀양인 박중손朴仲孫의 특이한 묘가 있어 주목거리다. 그의 천문인 전력답게 장명등 화창火窓 구조가 전후면은 네모형, 동쪽은 해를 상징하는 원형, 서쪽은 달을 상징하는 반월형이다. 이 집안도 파주서 조선 중기까지 꼿꼿이 가세를 유지해온 유력 가문이다.

파주에선 인마 접근이 힘든 산세의 감악산紺嶽山만큼 신비를 품은 곳도 드물다. 당나라 장수 설인귀薛仁貴를 연관시킨 설화가 천여 년 꼬리를 물고 이어온다. 정상에 남은 유적은 석단, 비석, 우물이다. 비석은 오래 전 글자가 뭉개져 '몰자비沒字碑'로 통칭되면서도 이 산에서 용전하다 산신령이 되었다는 구전과 함께 '설인귀비'로 계속 불린다. 『고려사』에는 거란 등 침략군이 퇴각할 때마다 설인귀 음덕이 언급되어 그의 사당 기능이 병존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 와서 허목許穆의 『기언記言』에는 '설인귀'가 언급되나 1세기 뒤 감악사 제향에 대한 조정 제관 신유한申維翰의 기록엔 설인귀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감악무당을 따로 두어 관악 · 송악을 어우른 3악에 기우제를 지낸 기록만 있다. 믿거나 말거나, 임꺽정이 관군의 추격을 피해 숨었다는 장군봉 밑엔 그 이름을 딴 바위굴이 있다.

탁상보다 현장에서

천유여 년, 삼국 · 고려 · 조선 · 근현대에 걸친 반도 안팎의 역사 전개에 있어서 이 땅 파주의 산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속에서 대를 이어 산 조선들 각기가 어떤 모습으로 역할을 분담해 왔는가. 시 승격 전년도인 1995년에 『파주군지』를 펴낸 지 13년여 만에 새로운 시각의 『파주시지坡州市誌』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10년이란 세월은 유구한 역사의 숨결 속에선 결코 길다 할 수 없겠으나 특별히 근래 몇 년 겪은 파주의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어서 출판 작업을 1년에 마무리짓는 데 어려움도 없진 않았다.

항용, 근래의 군지, 시지들이 주로 서재를 장식하는 장서 역할에 머물지 않나 하는 비판 내지 자성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과장되거나 난해한 어휘나 문장에다 책마저 크고 무거워서 펴고 읽기 힘겹기도 했다. 편찬팀은 이러한 결함을 극복한 새로운 시지를 만들려는 의욕에서 무엇보다 형식주의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역사, 지리, 인물, 관광자원에서 옛 사진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정리, 9권에 나누어 실어 파주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관심 분야를 골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노년층은 물론 초등학생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표준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생동하는 내용이 되도록 역사자료나 문헌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찾아가 발굴 수집했으며, 그것을 전문가가 직접 해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많은 가문의 이

야기가 책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시 당국 행정통신망의 도움을 받아 족보, 가승 등 증빙 문헌들을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0일 이상의 공람 기간을 설정, 22건의 방문 질의와 그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장 문헌 조사의 의외 성과로, 근기 파주 지역의 가족사적 특징과 기호 사림의 독자적 형성이 확인되었다. 주로 조선 중기 이전에 파주에 입향한 집안에서 눈에 띄는 현상으로, 장남이 관직을 제수 받아 서울로 나간 경우 그들이 말년에 귀향하기보다는 타지로 분가해 나가고 고향에서는 차남 이하가 대를 잇는 의외의 현상이 뚜렷했음을 알게 되었다. 율곡, 우계, 휴암을 중심한 기호 사림층의 형성이 파주를 무대로 일찍 태동한 사실이 밝혀져 이 분야 연구에서 새로운 진척이 기대된다.

귀한 사진도 많이 실렸다. 휴전 이후 것은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 그보다 옛날 관혼상제 때 찍었다가 난리를 뚫고 어렵사리 보관하여 온 사진들을 흔쾌히 제공해준 결과 수집된 사진이 2600장을 넘는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그중 일부만 선별 게재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다.

이 책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 하나는 서민의 삶에도 조명을 비췄다는 점이다. 문헌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군지와 시지에는 지역 명문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나머지 민초의 존재와 거취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는 불만도 없지 않았다. 문인들의 르포집인 이 책의 제4권 『파주사람』에는 농어업 등 생

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학 전문가 그레고리 헨더슨은 그의 저서 『한국, 소용돌이 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에서 '높은 동질성에다 모든 것이 중앙을 향해 소용돌이치는 정치 패턴에서 매관매직이 성했던 조선 말기 총 인구 중 절반은 양반'이었다면서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그 원인에 대해 대단히 복잡한 변수들, 특히 향반 · 아전들의 역할이 컸다고 보았다.

헨더슨이 인용한 일인학자 시카타[四方] 히로시의 조사는 표본 지역에서 1690년 7.4%이던 양반의 구성비가 166년 뒤인 1856년에 6배 이상 늘어난 48.6%(호구로는 70.3%)로, 반면 49.5%이던 상민은 20.1%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강점 직후인 1914년 토지조사와 같은 때 시행된 일제의 호구조사에선 의외로 양반이 줄어들었다. 총 274만여 호에 양반 · 관리를 합친 지배층은 2.6%뿐, 농민 · 상공인 · 서민이 97.4%였다. 워낙 봉건제가 철저했던 일본의 신분별 구성은 명치유신 직후인 1872년의 조사에서 황족, 화족, 사족을 합친 지배층이 5.4%, 평민은 94.6%로 나타났다.

영국 등 봉건 유럽이 총 인구 내 귀족 구성비를 5% 아래로 억제한 것은 생산에 참여하는 평민 위에 군림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그에 비하면 이 땅에선 느슨한 규제 장치와 신분 상승 욕구가 맞물려 지배 · 피지배 계층의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변하고 말았다. 만일 시대정신 변전에 아랑곳없이 그런 기형적 사회 구도가 다시

금 그늘을 드리운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시 · 군지의 출판 붐이 어쩌다 잠재적 계층 갈등을 자극하는 부작용은 없을까, 편찬팀에겐 일말의 우려가 없지 않았다. 팀의 일관된 지향점은 시민들로 하여금 내 고장의 고금을 성찰하여 애향심을 북돋는 기틀을 제공하고 그것이 향토 사회, 국가 사회의 화합과 동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런 대망은 어떻게 하면 구현될까. 우리가 근년 파주시의 변혁에서 인지하듯 역사 안목을 가진 실천적 리더십이 시대 요구에 부응하여 능동적인 역할을 어느 만큼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게 된다.

이 책의 편제

시지의 전질은 모두 9권,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1~5권은 부문별 서술집이고, 제6~8권은 역대 인명록을 포함한 현황자료집, 그리고 제9권은 사진자료집이다. 이처럼 여러 권으로 나눔에 있어 각권별 완성도를 높이려다 보니 권, 챕터 간에 내용상 일부의 중복을 편집 기술상 피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제1권 『파주이야기』는 '한 권으로 읽는 파주' 라는 부제가 말하듯 원로들의 지상좌담을 통해 파주 100년, 문인들의 르포를 통해 파주 365일과 파주 24시를 일별한 뒤 파주의 산하, 선현의 발자취와 파주의 비전까지를 간추려 전질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제2권 『파주역사』는 선사,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로 나누어 파주의 역사를 기술했다. 필진은 시대별 전공을 고려하여 주로 강단 사학자들로 구성되

었다. 제3권 『파주생활』은 자연과 지리, 산업과 경제, 마을과 민속 그리고 파주 술까지 다루었다. 제4권의 『파주사람』은 역사 인물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시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문인들의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소개했다.

제5권 『파주자랑』은 파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 한 권을 지침서로 하여 파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안에 있는 향교 · 서원 등 문화유산, 관광자원, 맛과 멋 등을 소개하였다. 제6권은 고문서를 포함한 문헌자료집, 제7권은 인물자료집, 제8권은 현황자료집, 그리고 마지막 제9권은 사진자료집이다. 여기에는 편찬실 조사원들이 여러 마을을 파고들어 수집한 옛날 사진들을 오늘의 사진과 나란히 실어 고금을 한눈에 살펴보게 함으로써 수백 년간 이 땅에 일어난 변화를 독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각 권의 편제와 인물, 그리고 사건의 수록 대상 범위를 판별하는 기준은 각 권의 제일 앞부분에 「일러두기」로 분명하게 밝혔다.